치과진료 후 발생하는 이상 감각과 통증은 치과의사의 잘못인가?

김 영 균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진료 후 신경손상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지속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유발하였거나.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통증은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원인 불명”이거나 “분명히 치과의사의 잘못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보호자, 법조인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됩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엔 전적으로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이거나 원인 불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책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경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치료 및 수술은 매복지치 발치, 국소마취, 턱교정수술, 임플란트수술, 근관치료, 구강내 골편 채취, 골절, 감염, 수술용 약제 관련 등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원인미상의 신경손상 증상도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경손상과 관련한 사전설명이 매우 중요하고 치료 후 이상감각이 발생하였을 경우엔 원인과 대처방안 및 예후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통증은 치과의사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입니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치아, 잇몸 및 구강 주위 조직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많은 치과의사들이 치아 및 치주 조직 기원의 통증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치료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실제로 호소하는 통증은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치과질환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근관치료, 발치, 임플란트 식립, 다양한 구강악안면 부위 수술이 합병증 없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환자를 정신질환이나 꾀병 환자로 몰거나 원인불명의 통증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처할 경우 환자는 잘못된 치과치료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과의사들은 구강 및 안면부의 다양한 통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적절한 진 단과 치료를 시행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가피한 의료분쟁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학력 및 경력: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 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임상교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